

김남훈 변호사 민법 기본강의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에정인 수험생까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법의 시작과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사실체과목 · 민사절차과목 · 민사실무과목을 모두 강의할 수 있고,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본강의

- 강의일정 2015년 12/28(월) ~ 2/5(금), 오후, 총 35 회, 월~토
오후 1:40 ~ 5:30
※ 2회 차부터 매일 복습시험 진행 - 오후 1:00 ~ 1:30

- 교 재 주교재 : 민법강의(김준호 저)
부교재 : 단권화 보충자료(제공)

- 수강특전
 1. “친족상속법”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무료제공
 2. “도표로 정리하는 요건사실론 특강”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무료제공
 3.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해설집” 무료제공
 4. 민법 + 상법 동시 수강 시 “민사소송법” 동영상 강의(2015. 2.) 무료제공

- 강의진행 I.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제1회 ~ 제4회 변호사시험은 형식면에서는 모의시험을 통해 공개된 출제방식과 사법연수원의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출제되었고, 내용면에서는 사법연수원과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에 대하여 사법연수원 문제유형으로 출제
되었다’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출제수준으로 공지한 대로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의 난이도'라는 출제지침을 반영한 이러한 출제경향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될 수 있고, 앞으로 시행될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출제위원에 실무가의 비중과, 실무적인 통합형 쟁점의 출제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II. 민법의 중요성 및 공부방법론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기 때문에 '고득점 합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모든 법과목의 기본이어서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쟁점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과 정리된 학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민법의 출제경향은 법적 분쟁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당해 분쟁에 관련된 근거 조문을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그에 관련된 중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이론이 대립되는 이유와 판례는 어떠한 논리로 현재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암기식 출제를 지양하고 종합사례 문제를 통한 체계적인 지식의 체득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추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고, 실무가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III. 강의목표

1. 기본개념의 정확한 이해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법학에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법학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쟁점에 대한 통설적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강의의 제1차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2. 교과서의 강약조절 및 인접과목의 입체적 학습

민법 학습의 기준은 항상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과서에 서술된 모든 부분을 동일한 강도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준호 교수님의 기본서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과 문장만을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법,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개념도 함께 학습할 것입니다. 민법의 인접과목도 함께 학습해야만 교과서에 서술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도 가장 부합합니다.

3. 핵심키워드 및 기출지문 밑줄정리

핵심키워드와 기출지문 등 교과서에 밑줄로 표시할 부분도 강의시간에 정리하여 별도로 밑줄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실관계와 평석을 통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

중요 쟁점마다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Leading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유까지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판례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정리와 판결이유 및 관련평석을 정리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중요 쟁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한 후, 실무가 및 교수님들의 중요 평석들을 통해 논리적 시각을 체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5. 실무자료 등을 통한 입체적 학습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에 사용되는 각종 실무자료, 판결주문 기재례 및 부동산등기기록 기재례와 같은 실무서류 등을 보충자료로 이용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기록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때에만 물건변동과 관련한 중요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기록형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복습시험을 통한 학습성취도 평가

기본서 학습단계부터도 실전용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차부터 복습진도 범위 내에서 복습시험을 진행합니다. 복습시험을 통하여 개인별 취약부분에 대한 1:1 과외식 Q&A도 진행할 것입니다.

IV. 강사와 수강생의 소통을 위한 밴드활용

강사와 수강생 간의 소통을 위하여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강의에 대한 건의사항, 필요한 강의 및 교재의 제안, 과외식 1:1 대면학습을 위한 일정 협의, 슬럼프 극복을 위한 방법 공유,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등과 같이 실시간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밴드를 활용하겠습니다. 본 기본강의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밴드라는 공간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시작부터 합격의 순간까지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V. 교수님 교과서로 수강하는 마지막 강의

본 강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하여 2016년도에 1학년이 되는 비전공 수강생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강생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즉 기본개념부터 심화된 판례의 법리까지 철저하게 강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수강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교수님 교과서로 수강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법의 시작과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사실체과목·민사절차과목·민사실무과목을 모두 강의할 수 있고,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 강사의 민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별 강의내용

횟수	날짜	진도범위	페이지
■ 제 1 회	12/28(월)	민법 일반 ~ 사정변경의 원칙	3 ~ 56
■ 제 2 회	29(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실종선고의 취소	57 ~ 123
■ 제 3 회	30(수)	법인 ~ 법인의 감독	123 ~ 181
■ 제 4 회	31(목)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81 ~ 243
■ 제 5 회	1/1(금)	법률행위의 내용 ~ 통정허위표시	243 ~ 287
■ 제 6 회	2(토)	착오 ~ 대리행위의 하자	287 ~ 336
■ 제 7 회	4(월)	대리인의 능력 ~ 무효행위의 추인	336 ~ 382
■ 제 8 회	5(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권리의 불행사	382 ~ 430
■ 제 9 회	6(수)	소멸시효 기간 ~ 민법총칙 끝	430 ~ 467

※ 민법총칙(9회) ➡ 물권법(9회) ➡ 채권총론(8회) ➡ 채권각론(9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물권법 이후는 추후제공)